지난 23일 전남대 경영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금약그룹 김춘학(50) 회장.

보따리상서 중국 500대 기업 일군 금약그룹 김춘학 회장

어머니 고향 광주서 꿈 설파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던 제가 조선족을 대표해 어머니의 고향 광주에서 강연까지 하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23일 전남대 경영대학 소강당에서는 재중동포기업 금약그룹(金躍集團) 김춘학(50) 회장이 '꿈은 내 삶의 원동력'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강연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성공 스토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선족 출신… 동포학교 건립·매년 장학금 기부

"성공비결 따로 없다… 남보다 2~3배 노력해야"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난 김 회장은 20년 전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보따리에 물건을 담아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해 지난 2000년 금약그룹을 세웠다. 회사는 설립 5년 만에 중국 500대 민영기업에 포함됐고, 태양광발전 및 IT분야 등에 16개의 자회사에 1000여명의 임직원이 연간 2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김 회장은 3000억원대의 자산가로서 중국 흑룡강성에 조선족 학교 건립 지원 및 매년 2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며 조선족 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가 이룬 성취는 누구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한국에 더 큰 기업이 많지만 금약그룹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제 두 손으로 직접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1920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의 어머니 김영자씨는 끼니 해결이 힘들 정도로 형편이 빠듯했다. 어머니의 가족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인심은 더욱 각박해졌고 결국 고국을 떠나 한 달여를 걸어 중국 동북쪽 무단장까지 왔다. 어머니는 낯선 땅에서 조선족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고 항일운동에 나설 정도로 강인한 여성이었다.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네 힘으로 당당히 이겨내거라. 항상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꿈을 향해 정진해라!"

연료공장 하역인부였던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열흘처럼 보냈다. 힘든 시기였지만 소중한 경험도 얻을 수 있었다. 러시아 시베리아 추위 속에서 떨고 있을 때면 어머니의 김치가 떠올랐다. 그러나 생각에 그칠 뿐 김치를 먹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연히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같은 조선족을 만난 기쁨에 저를 집으로 데려가 한국식 푸짐한 상을 차려 주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동포가 마련해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제 가슴에 흐르는 조선족의 피를 실감했어요. 그래서 조선족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김 회장은 공장생활 틈틈이 공부를 쉬지 않았고 1984년 무단장에 있는 물자간부관리학교에 차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자신의 힘으로 창업해 중국을 넘어 세계에 진출하고 싶다는 꿈을 세우고 안정된 공직을 포기한 채 국경으로 가서 무역업에 뛰어들었다. 국경무역은 큰 위험이 따르는 만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보따리사업에서 시작해 물류회사를 설립했고 중국에서 부동산 열풍이 불던 시기 건설업에 도전해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지금도 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부단히 도전하고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만약 아직 꿈을 찾지 못했다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찾으세요. 성공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김 회장은 취업난을 호소하며 성공의 비결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2~3배 노력해야 한다고, 똑같이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어머니, 노래를 들으면서 왜 눈물을 흘리세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머나먼 타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어두운 밤 남몰래 한국 민요를 들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삼켰다. 어느덧 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김 회장은 50년 만에 광주를 찾았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 성장해 어머니의 고향 광주를 찾은 김춘학 회장.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조선족의 꿈을 찾아주고,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 양세열기자 hot@

광주 새 야구장 여성 배려 돋보였다

女 화장실 男의 1.7배… 수유실·유아놀이방 설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포상·우수사례 발표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는 여성 관객이 40%대로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여성 관객은 급증하는데 야구장시설은 남성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화장실 이용 등에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지난 1965년 건립된 광주야구장의 여성 전용 화장실은 변기가 40개에 불과해 전국 야구장 중에서도 '긴 줄 서기'로 악명을 떨쳤다. 한국시리즈 등 대형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느라 호들갑을 떨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주의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여성과 장애인을 배려한 점이 최대 강점이다.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의 1.7배 비율로 마련하고, 파우더룸과 기저귀 갈이대 등도 함께 설치된다. 모유 수유실 4곳과 유아놀이방 2곳은 물론 외야 관람석에 어린이를 위한 샌드파크 놀이공간도 배치된다.

새 광주 야구장의 이러한 시설 개선은 여성을 위한 '배려 조치'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을 포함한 가족 단위 관람객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잘못된 시설을 바로 잡은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포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1만3522건 중 '광주 새 야구장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가 대통령 표창을, 인천 부평구와 농촌진흥청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인 광주시 광산구와 장흥군이 여성 가족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새 야구장의 여성 편의시설 마련에 기여한 광주시 정대경씨를 비롯한 광주시 북구 김은선씨 등 우수 공무원 24명, 우수 컨설턴트 2명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이라며 "국민 세금이 남녀 차별 없이 쓰이도록 각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안전문화운동 전남도協 출범

박준영·김필식 공동위원장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남도협의회'가 24일 출범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남도협의회 출범식을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안전한 전남!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한 4대 전략과 13개 분야별 중점 관리과제를 채택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필식 동신대학교 총장이, 7명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지방경찰청차장 등이 맡으며 22개 시민단체 대표와 9개 지역 유관기관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 분과로 나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안전수칙, 안전의식 등 실천과제를 발굴해 안전문화운동을 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외국관광객 유치 힘 모은다"

오늘 시·도 관광진흥협 창립총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공동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 창립총회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은 강운태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강 시장은 지난 4월 1일 간부회의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는 양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광부서에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제출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특히 쇼핑과 숙박 자원 등이 풍부한 광주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전남을 묶은 관광코스 개발과 무안발 전세기 노선 개발 등에 주력하는 한편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린피 등을 내세운 골프 관광 등도 적극 개발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시·도의회의장협,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를 열고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방 규탄 성명서도 가결됐다.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은 영암에서 열리는 2013 F1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제13대 후반기를 이끌 회장으로 송필각 경북도의장과 최진호 전북도의장을 선출했다. 사무총장에 조호권 광주시의장이 선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 림

제83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7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오경진 교수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요로결석'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 제83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요로결석'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비뇨기과 오경진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요로결석의 증상·원인, 진단·검사, 치료·예방, 경과·합병증 등에 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된다. 강의 내용은 오는 30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주 제 : '참을 수 없는 고통, 요로결석'
■강 사 : 오경진 비뇨기과 교수

-대한비뇨기과학회
-전립선학회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전문진료분야:요로결석, 비뇨기 손상 및 재건, 비뇨기 초음파

■일 시 : 9월 27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신양파크호텔 채용정보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숲속의 궁전 신양파크호텔에서 함께 근무할 신입, 경력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모집부분		모집인원	자격요건
재경(회계)	경력	0명	- 회계결산 가능자 - 해당분야 직무 경력 5년 이상 - 운전 가능자 우대 - 상경계열 전공자 우대
프론트	신입 경력	00명	- 전문대학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호텔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호텔관련 실습, 경력자 우대 -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 중국어, 일어)
벨맨	신입 경력	00명	- 전문대학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호텔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호텔관련 실습, 경력자 우대 - 운전 가능자 우대 -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 중국어, 일어)
룸메이드	신입 경력	00명	- 학력 무관 - 해당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조리	신입 경력	00명	- 학력 무관 - 해당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전형방법
서류전형 → 서류합격 통보 → 면접 → 최종합격 통보
☞ 당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담당자 E-mail을 통한 입사지원
★홈페이지 : www.shinyangparkhotel.com 또는 h0104kj@nate.com
★채용문의 : 인사팀 062)221-4172
관리부장 062)221-4500(010-3624-8589)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해군함정과 함께 남해안 절경을 찾아서
이순신해상순례 검색
www.knnews.co.kr
www.이순신해상순례.kr
제5회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해역 순례
참가비 무료
도시락, 음료, 간식, 기념품 및 리플릿 등 당일 필요 물품 무료제공 참가비 없음
2013년 10월 19일(토)
오전 8시 ~ 오후 5시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해역을 우리 군함을 타고 순례하는 전국의 참가자 400명을 모집합니다.
남해안 천혜의 절경도 감상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정 : 상륙함
진해군항 → 승전해역 순례 → 진해군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문 홈페이지 참조.
◇ 대상 : 전국민, 초등학생 이상 400명
※ 4회 참가자 제외
◇ 접수기간 : 2013년 9월 24일 ~ 10월 1일까지
[경남신문사 홈페이지] www.knnews.co.kr www.이순신해상순례.kr
◇ 선정 : 신청자 대상 추첨 선정 (지역별, 가족 · 단체별 고려. 인원초과 시 예비후보 선발)
※선정자 추후 본지 및 홈페이지 공지
문의처 : 055)210-6101 ~ 4
■ 주최 : 경상남도
■ 주관 : 경남신문
■ 후원 : 대한민국해군
(사)21세기 이순신연구회
(사)충무공이순신연구원